

The Value of the Pansori Collection of LP Records Produced by the Publishing Company “The Deep-Rooted Tree”

Kim, Sug-bae

An honorary professor,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Korea

sbkim5@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Pansori of The Deep-Rooted Tree" and "Five Pansori of The Deep-Rooted Tree", a complete collection of pansori albums from deep-rooted trees, and the current status of CD albums that re-released them.

Methods Through a review of the entire pansori album released by ‘The Deep-Rooted Tree’, we will examine the status of each album in the pansori record label.

Conclusions First, the 'The Deep-Rooted Tree Appreciation Meeting'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publication of the entire pansori album. Second, 'Pansori of The Deep-Rooted Tree' and 'Five Pansori of The Deep-Rooted Tre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ansori research. Third, 'Pansori of The Deep-Rooted Tree' was re-released as a CD in 2000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and researching pansori.

Keywords Han Chang-ki, Pansori of The Deep-Rooted Tree, Five Pansori of The Deep-Rooted Tree, Pansori Collection, The Value of the Pansori Collection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4.10.312.002

Received: Sep. 20. 2024 ; Reviewed: Oct. 10. 2024 ; Accepted: Oct. 15. 2024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음반 전집의 의의

김석배

목 차

1. 머리말
 2. 브리태니커·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3.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음반 전집의 현황과 의의
 4.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재발매 CD음반의 현황
 5. 맺음말
-

1. 머리말

한창기(1936-1997)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을 가꾸고 보급하는 데 열정적이 었다.¹ 1974~1978년 사이에 100회의 판소리 감상회를 열어, 고사 직전의 판소리를 되살리 는 데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고, 1982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출판을 시작으로, 1984년 『뿌리깊은나무 팔도소리』, 1989년에는 『뿌리깊은나무 산조 전집』, 『뿌리깊은나무 한반도 의 슬픈 소리』, 『뿌리깊은나무 해남 강강술래』를 출판하였으며, 1990-1992년에 『뿌리깊은 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을 출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그것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 이 글은 제578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2024년 10월 8일에,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뿌리 깊은 나무 발행인 한창기의 전통 인식’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학회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다. 아울러 이 글은 다음의 두 논문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김석배. (2022).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음반 전집의 의의. 판소리와 판소리문화. 서울: 박문사. 김석배. (2016).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소리 음반에 대하여. 선주논총, 19.

『브리태니커 (뿌리깊은나무) 판소리』(23LP) 1982년	1. 춘향가(6LP) 소리 조상현, 북 김명환
	2. 심청가(5LP) 소리 한애순, 북 김명환
	3. 흥보가(4LP) 소리 박봉술, 북 김명환
	4. 수궁가(3LP) 소리 박봉술, 북 김명환
	5. 적벽가(4LP) 소리 정권진, 북 김명환
	6. 단 가(1LP) 소리 박봉술 외, 북 김명환
『뿌리깊은나무 팔도소리』(11LP) 1984년	1. 황해도·평안도·함경도·강원도 소리(3LP)
	2. 경기도·경상도·충청도 소리(4LP)
	3. 전라도·제주도·장례 소리(4LP)
『뿌리깊은나무 산조 전집』(9LP) 1989년	1. 김죽파 가야금산조(1LP)
	2. 함동정월 가야금산조(1LP)
	3. 지성자 가야금산조(1LP)
	4. 김영재 거문고산조(1LP)
	5. 원광호 거문고산조(1LP)
	6. 이생강 대금산조(1LP)
	7. 서용석 대금산조(1LP)
	8. 박종성·김일구 아쟁산조(1LP)
	9. 최태현 해금산조, 박범훈 피리산조(1LP)
『뿌리깊은나무 한반도의 슬픈 소리』(3LP) 1989년	1. 강강술래, 진도 상여소리(1LP)
	2. 수심가와 엮음수심가, 긴아리와 자진아리, 정선아라리, 정선 자진아라리, 지계 어사용(1LP)
	3. 혼맞이 노래, 육자배기와 자진육자배기, 삼산은 반락, 개고리타령, 흥타령(1LP)
『뿌리깊은나무 해남 강강술래』(1LP) 1989년	해남 강강술래(1LP)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22LP) 1990-1992년	1. 흥보가(4LP) 소리 오정숙, 북 김동준(1990)
	2. 춘향가(7LP) 소리 최승희, 북 김명환(1990)
	3. 적벽가(4LP) 소리 송순섭, 북 김성권(1991)
	4. 수궁가(3LP) 소리 정광수, 북 정철호(1991)
	5. 심청가(4LP) 소리 조상현, 북 장종민(1992)

그리고 한창기는 우리 전통문화에도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되살리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여 차, 반상기, 한지, 짚물, 옹기 등을 재현·보급하였으며, 전통 미술품, 고대 토기, 목기, 옹기, 전적, 복식 자료 등 문화재급 유물들을 수집하였다. 한편 1976년 3월에 창간한 『뿌리깊은나무』와 1984년 창간한 『샘이깊은물』을 통해 대중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본고에서는 한창기가 기획·제작한 판소리 자료인 『뿌리깊은나무 판소리』와 『뿌리깊은

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을 재발매한 CD음반의 현황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이 판소리 음반 전집에 대한 이해와 한창기가 가졌던 판소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일면을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브리태니커·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1960년대에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서구문화가 해일처럼 밀려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은 설 땅을 잃어버리고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는 운명에 놓였다. 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1962년 1월 20일 문화재보호법(법률 제961호)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해 6월 26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각령 제843호)을 제정하는 한편 1964년 2월 15일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문교부령 제135호)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게 되었다.

판소리는 1930년대 중반 조선성악연구회 시절부터 창극이 상연되면서 창극 소리로 변질되기 시작했으며, 해방 후 1950-60년대에 여성국극이라는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면서 정통 판소리는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판소리는 불행 중 다행으로 춘향가가 1964년 12월 28일 「문교부 고시 제121호」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로 지정되고, 이어 김연수·김소희·김여란·박록주·정광수·박초월 등 6명이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1970년 7월 22일 정권진이 보유자로 인정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뒤 1973년 11월 5일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전승오가가 곡목별로 지정되면서 김소희·김여란·김연수는 춘향가, 정권진은 심청가, 박록주는 흥보가, 정광수·박초월은 수궁가 보유자가 되었다. 그리고 1973년 11월 11일 박동진과 박봉술이 적벽가 보유자가 되었으며, 1976년 6월 30일 한승호가 적벽가 보유자가 되었고, 1978년 2월 2일 김명환이 중요무형문화재 제59호 판소리 고법 보유자가 되었다.²

1970년대에도 판소리의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판소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었지만 창극, 국극, 토막소리 등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정통 판소리는 여전히

2 1991년에 판소리 고법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에 통합되었다. 김석배. (2009). 판소리의 보존과 전승 방안. 문학과 언어, 31. 김혜정·이명진. (2011). 판소리. 서울: 민속원, 154-157. 지금은 2024년 5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그 명칭이 ‘국가무형유산 제5호 판소리’로 변경되었다.

겨우 명맥만 부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이러한 때에 일부 뜻 있는 소리꾼들 사이에 정통 판소리를 살리고 지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1970년 1월 판소리보존연구회를 설립하고³ 이듬해부터 해마다 판소리유과발표회⁴를 연 것도 정통 판소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1974년 1월 정통 판소리의 보존과 전승에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다. 판소리학회와 브리태니커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브리태니커 판소리 감상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판소리학회(정병욱, 강한영, 이보형)에서 소리꾼을 찾아내고, 브리태니커사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 판소리 감상회는 1978년 9월까지 100회 열려 판소리 전집 출판의 원동력이 되었다.

브리태니커 판소리 감상회를 마련한 저간의 사정은 다음의 인용문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올바른 대로 소리하는 이들의 소리를 낚았다고 하여 듣고자 하는 이도 없고 배우고자 하는 이도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소리를 간직한 소리꾼에게 소리판을 벌일 기회를 주어 그의 소리를 되살리는 일과, 구경꾼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자주 들려주어 그들의 귀를 뚫리게 하는 일과, 구경꾼이 소리꾼과 함께 어울려 흥을 돋우는 추임새의 구실을 되찾는 일과, 소리판에서 토막소리로 판을 벌이게 하지 못하고 전판으로 벌이도록 하는 일과, 젊은 소리꾼에게 소리판을 마련해 주어 명창으로 길을 잡게 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래서 판소리학회와 뿌리깊은나무가 공동으로 판소리 감상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 뜻에서 마련된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인 만큼 올바른 스승에게 소리를 제대로 힘을 들여 배운 이를 고르게 되었다. 비록 시골에 묻혀 있고 또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옳은 소리꾼이면 찾아서 소리판에 내세웠다. 또 소리꾼은 반드시 전판을 부르도록 하되 한 번의 소리판이 한 시간인 까닭으로 미처 부르지 못한 대목은 다음 소리판에서 마저 부르게 했다.⁵

3 판소리보존연구회는 1970년 1월 31일에 박록주의 자택(원서동 221-1)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으로 이사장 유기룡, 부이사장 강한영, 상임이사 이보형, 이사 金演洙 박록주 김여란 박초월 김소희 박귀희 정광수, 감사 박동진 장영찬, 고문 金蓮洙 이해구 박현봉 성경린 한갑수를 선임하였다. 『동아일보』, 1970. 2. 17. 그 뒤 (사)판소리보존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4 1971년에 「명창 권삼득 탄생 이백 주년 기념 제1회 판소리유과발표회」(국립극장, 7. 5.)를 연 이래 현재까지 해마다 판소리유과발표회를 열고 있다.

5 이보형. (1978). 금요일마다 남몰래 들인 공-일백 고개 넘은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뿌리깊은나무, 10. 19.

이와 같이 판소리 감상회를 열게 된 취지는 계통이 뚜렷한 판소리 즉 사승 관계가 분명한, 올바른 판소리를 아끼고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브리태니커 판소리 감상회는 월 1회 열렸는데, 제1회 판소리 감상회는 1974년 1월 18일 브리태니커사 벤튼홀(중구 저동 2가 50-1 영락빌딩 3층)에서 열렸다. 이때 박동진이 적벽가를 불렀고, 고수는 김득수였다.⁶ 브리태니커 판소리 감상회는 1975년 6월 5일 제13회 판소리 감상회(김소희 심청가, 고수 박후성)가 열린 후 일시 중단되었다. 다음은 당시에 열린 브리태니커 판소리 감상회를 정리한 것이다.⁷

구분	곡목	창자	고수	해설	일시
제1회	적벽가	박동진	김득수	강한영	1974. 1. 18.
제2회	춘향가	성우향	박후성	이보형	1974. 2. 22.
제3회	심청가	정권진	이정업	박 황	1974. 3. 22.
제4회	홍보가	박초선	김명환	정병욱	1974. 4. 26.
제5회	수궁가	조상현	김동준	이보형	1974. 5. 24.
제6회	홍보가	박초월	김명환	강한영	1974. 6. 28.
제7회	심청가	김소희	박후성	박 황	1974. 9. 27.
제8회	춘향가	성우향	김득수	박 황	1974. 10. 25.
제9회	적벽가	박동진	김명환	정병욱	1974. 11. 22.
제10회	심청가	정권진	김득수	강한영	1974. 12. 20.
제11회	수궁가	조상현	김동준	이보형	1975. 3. 28.
제12회	홍보가	박초월	김득수	강한영	1975. 4. 24.
제13회	심청가	김소희	박후성	정병욱	1975. 6. 5.

1974년 7월과 8월 그리고 1975년 1월과 2월을 제외하고 매월 판소리 감상회가 열려 적벽가,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가 연창되었다. 박동진·성우향·정권진·박초선·조상현·박초월·김소희가 소리하고, 북 장단은 김득수·박후성·이정업·김명환·김동준이 맡았다. 그리고 해설은 강한영·이보형·박황·정병욱이 하였다.

1976년 3월 『뿌리깊은나무』가 창간되고, 그다음 달부터 판소리 감상회가 다시 열렸다. 명칭이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⁸로 바뀌었고, 매주 금요일 브리태니커사 벤튼홀에서

6 『동아일보』, 1974. 1. 11.

7 판소리학회편. (1975). 판소리연구, 1, 판소리학회, 79-122. 모두 금요일 오후 7시에 렴으며, 1975년 6월 5일은 목요일에 열렸다. 최근에 이보형이 1-99회까지 정리한 목록이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8).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백회의 기록. 국립중앙도서관, 35-38쪽에 수록되어 있는데, 일부가 다르다. 판소리학회편. (1975). 판소리연구, 1의 기록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렸다. 당시 브리태니커사는 용산구 동자동 17-18 USO건물에 있었으며, 1997년 9월 신문로1가의 한글회관으로 옮겼다. 1976년 4월 16일에는 제14회 판소리 감상회가 열렸는데, 정권진이 수궁가(고수 김명환)를 연창하였고 강한영이 해설하였다.⁹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는 1978년 9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 중앙홀에서 가진 100회 기념공연을 마지막으로 5년여에 걸친 긴 여정을 접었다.¹⁰ 한창기는 판소리 감상회를 더 열고 싶었지만 판소리 전판이 바닥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¹¹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는 단순히 판소리를 감상하는 소리판이 아니라 학문적인 뒷받침과 진지한 대화가 따르는 감상회였으며 평생 닦아온 소리꾼의 공부와 재주가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였다. 따라서 소리꾼들은 이 무대에 서는 것을 큰 보람이요 영광으로 여겼다.¹² 100회에 걸친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에서 전판을 부른 소리꾼은 박초월(수궁가), 박봉술(춘향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정권진(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강도근(흥보가), 한승호(적벽가), 한애순(심청가), 박동진(심청가, 수궁가), 공대일(수궁가), 성우향(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오정숙(춘향가, 심청가), 박조선(춘향가, 흥보가), 한농선(흥보가), 성장순(심청가), 조상현(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안향련(심청가), 김영자(춘향가), 박송이(흥보가) 등이다. 그리고 김소희(춘향가), 김여란(춘향가), 박동진(적벽가), 임준옥(수궁가) 등이 토막소리를 하였다.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감상회의 가장 큰 의의는 박봉술의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와 정권진의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강도근의 흥보가, 한애순의 심청가, 박조선의 춘향가를 들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정통 판소리와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골에 묻혀 있었던 탓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소리꾼들이었다.¹³

8 앞으로 브리태니커 판소리 감상회와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는 편의상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라고 한다.

9 『경향신문』, 1976. 4. 15., 『동아일보』, 1976. 4. 28.

10 『경향신문』, 1978. 9. 28.

11 국립국악원. (2011). 국립국악원 구술총서 2, 이보형. 76.

12 이재성. (2008). 다 죽어가는 판소리를 되살린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백 회. 특집! 한창기, 서울: 창비. 279.

13 이보형. (1978). 금요일마다 남몰래 들인 공-일백 고개 넘어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뿌리깊은나무, 10. 19-20. 이 글에는 한승호의 <적벽가>가 누락되어 있는데, 1976년 7월 2일과 9일에 공연(고수 김동준)한 기록이 있다. 『매일경제』 1976. 7. 1.

둘째, 판소리 감상층을 확대한 것이다. 귀명창뿐만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도 소리판에 모여들어 소리를 듣고 판소리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제1회부터 제13회에 이르는 동안 청중 수는 1회 평균 70명가량이었고, 그중 약 70%가 대학생들이었다.¹⁴ 이러한 사정은 그 뒤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100회에 이르는 이 소리판에 대략 7,000명이 넘는 청중들이 다녀갔다고 한다.¹⁵

셋째, 판소리 사설집 제공 등을 통해 판소리가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판소리 학회가 결성되고 1975년 8월 『판소리研究』 제1집이 간행되었다.¹⁶

넷째, 다양한 판소리 감상회가 열리게 되는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1976년 5월부터 삼일로 창고극장에서 열린 월례 판소리 감상회¹⁷와 1977년 1월부터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열린 국립창극단의 판소리 감상회¹⁸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정통 판소리를 되살리고 뿌리내리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는 『뿌리깊은나무 판소리』와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을 출판할 수 있게 한 ‘뿌리’요 ‘샘’이었던 것이다.

3.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음반 전집의 현황과 의의

한창기는 주지하듯이 1982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를 출판하였고, 1990년에서 1992년 사이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을 출판하였다.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가 100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자 마땅히 들을 만한 소리가 없어서 음반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⁹

14 『동아일보』, 1976. 3. 6.

15 정병욱, (1982). 브리태니커 판소리 전집의 출판에 부쳐. 판소리 다섯 마당. 서울: 한국브리태니커회사. 3.

16 당시의 판소리학회는 회장 정병욱, 기획 강한영, 연구 이보형이었다. 현재의 판소리학회는 1984년 5월 19일 창립되었으며, 초대회장은 강한영이었다.

17 제1회 판소리 감상회(1976. 5. 25-27.)에서는 김소희의 판소리에 대한 해설과 창, 김월화의 시조 및 단가 등이 있었고, 제2회 판소리 감상회(1976. 6. 28-30.)에서는 박동진이 수궁가(고수 김득수)를 하였다. 『동아일보』, 1976. 5. 25., 6. 24.

18 국립창극단의 판소리 감상회는 1974년부터 1975년 사이에 몇 차례 열렸고, 1977년 1월 29일부터는 월 1회 정도 열렸다. 국립중앙극장 엮음. (2002). 세계화시대의 창극. 국립극장, 268. 국립극장. (1980). 국립극장 30년. 서울: 국립극장, 670-676.

이제 뿌리깊은나무에서 기획·출판한 불후의 명반인 판소리 음반 전집의 현황과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뿌리깊은나무 판소리』는 1982년 5월 1일 음반 23장(판소리 다섯 마당을 완창한 음반 22장과 단가 1편이 담긴 음반 1장)과 자세한 주석과 국-영문 해설이 붙은 사설집 6권으로 세상에 나왔다. 이 음반 전집을 흔히 ‘브리태니커 판소리 전집’이라고 한다.

판소리 녹음은 이촌동의 서울스튜디오에서 했는데, 1980년 4월 박봉술의 수궁가 녹음을 시작으로 1981년 3월 조상현의 춘향가를 녹음함으로써 판소리 다섯 마당의 취입이 완료되었다.²⁰ 고수는 모두 김명환이었다. 음반 제작은 1982년 2월 10일 지구레코드공사에서 했으며, 음질을 보장키 위해 1,000질만 제작하였다. 그리고 해설은 이보형이 집필했으며, 사설 채록과 주석은 김영옥·홍현숙·김진옥·노경애·홍중선·이성계·김정수·성미령·안영빈·장애선이 하고 판소리학회(정병욱, 강한영, 이보형)와 하성래의 감수를 받았다. 이 사설집은 따로 묶어 『판소리 다섯 마당』²¹으로 출판되었는데, 앞으로 이 전집의 음반과 관련된 정보는 이 책을 따르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덧붙이기로 한다.

① <조상현 춘향가>

<조상현 춘향가>는 다음과 같이 음반 6장(총 4시간 31분 8초)에 담겨 있다.

구 분	내 용	시 간
1	A (아니리) 호남좌도 남원부는 ~ (잡은몰이) 산세를 이르게	21' 58"
	B (아니리) 춘향이 잠깐 어리석어 ~ (잡은중몰이) 여보, 장모, 염려 마오	24' 45"
2	A (아니리) 춘향모 술잔 받아들고 ~ (늦은중몰이) 춘향이가 무색하여	22' 47"
	B (아니리) 속 모르면 말 말라니 ~ (중몰이) 못허지야, 못허지야	23' 14"
3	A (아니리) 그때요 춘향이가 ~ (휘몰이) 청도기 별엿난디	22' 37"
	B (아니리) 좌기 초 하신 후에 ~ (진양) 사령 뒤를 따라간다	23' 34"
4	A (아니리) 사령들이 달려들어 ~ (중중몰이) 춘향 모친이 들어온다	20" 04"

19 김형윤. (1997). 언제나 고향 길 가던 사람, 한창기. 월간 사회 평론 길, 87(3), 126.

20 이재성. (2008). 다 죽어가는 판소리를 되살린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백 회. 특집! 한창기. 서울: 창비. 280.

21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판소리 다섯 마당. 서울: 한국브리태니커회사.

	B	(아니리) 그때요 교방청 여러 기생들이 ~ (중중몰이) 어사 번복을 차린다	22' 04"
5	A	(아니리) 한 모퉁이를 돌아드니 ~ (중몰이) 소인 방자놈	21' 00"
	B	(아니리) 어사또 생각에 ~ (아니리) 어, 잘 먹었다	23' 21"
6	A	(진양) 초경, 이경, 삼, 사, 오경이 ~ (아니리) 운봉이 보시더니	21' 36"
	B	(아니리) 본관이 보다 못해야 ~ (엇중몰이) 그때요 어사또는	24' 06"

조상현이 부른 춘향가는 동편제인 김세종제이다. 김세종은 전라북도 순창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집안에 전승되는 동편 소리를 익혔고, 신재효의 지도를 받아 판소리 이론에 밝았다. 춘향가에 뛰어났으며, 천자뒤풀이가 그의 더늠이다. 이 춘향가는 옛날 명창들의 더늠이 고루 담겨 있고, 조의 성음이 분명하며, 부침새와 시김새가 교묘할 뿐만 아니라 사설도 잘 다듬어져 있는 바디이다. 고종 때의 김찬업을 거쳐 정응민에게 전승되었는데, 조상현은 정응민에게 배웠다.²²

조상현(1939년생, 본명 조상석)은 전라남도 보성 출신으로 좋은 목을 타고났다. 13세 때 보성군 회천면 회천리에서 7년 동안 정응민에게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를 배웠다. 1959년 광주에서 정광수에게 적벽가를 배웠으며, 그 뒤 박록주에게 흥보가를 배웠고, 정권진에게 보성소리를 다시 배웠다. 1974년 남원에서 열린 전국남녀명창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했으며, 1976년 제2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에서 장원을 하였다. 그리고 1971년부터 1982년까지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수리성의 소유자로 음량도 크고 힘도 좋으며, 스승으로부터 뛰어난 바디를 전수하였고, 풍채도 좋아서 명창으로서의 조건을 두루 갖추었다.²³ 1991년 5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가 되었으며, 2008년 2월 21일에 보유자에서 해제되었다.

김명환(1913~1989)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출신으로 17세 때부터 북 장단을 배웠다. 장판개와 주봉현에게 북 장단의 이론과 실기에 대한 지도를 받았으며, 신찬문에게 북의 너름새에 대한 지도를 많이 받았다. 20대 후반부터 지방에서 임방울을 비롯한 여러 명창들의 북 장단을 맡았고, 40세 때부터 4년 동안 보성에 있던 정응민의 소리방에서 전용 고수로 있으면서 보성소리를 터득하였다. 1960년부터 중앙무대에 진출하여 수많은 판소리 공연에 참여했으며, 1978년 2월 2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9호 판소리 고법의 보유자가 되었다.²⁴

²²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판소리 다섯 마당. 서울: 한국브리태니커회사. 20-21.

²³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위의 책. 25. 창자와 고수에 대해서는 판소리 음반 전집을 출판하던 당시의 시점에서 기술하였다. 앞으로도 이와 같다.

²⁴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위의 책. 26.

② <한애순 심청가>

<한애순 심청가>는 다음과 같이 음반 5장(총 3시간 24분 29초)에 담겨 있다.

구분	내용		시간
1	A	(아니리) 송태조 입국지초에 ~ (중몰이) 한숨 쉬어 부는 바람	21' 08"
	B	(아니리) 유언 소리 끝이 나니 ~ (진양) 주과포 박잔혜여	19' 30"
2	A	(아니리) 괄씨부인을 장사하고 ~ (중중몰이) 춘하추동 사시절	17' 22"
	B	(안니리)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 낭자허니 ~ (잡은몰이) 심청이 들어온다	21' 58"
3	A	(아니리) 농 안의 옷을 내야 ~ (아니리) 딱 기절을 허는구나	18' 31"
	B	(아니리) 심봉사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서 ~ (진양) 범피중류	20' 54"
4	A	(중몰이) 소상팔경 지나갈 제 ~ (엇몰이) 천지가 명랑하고	23' 05"
	B	(아니리) 강두에다 집을 짓고 ~ (중중몰이) 일관 시켜 택일하야	17' 58"
5	A	(아니리) 황후는 되었으나 ~ (중몰이) 심봉사가 목욕을 허다	22' 47"
	B	(아니리) 그때여 무릉 태수 지내시다가 ~ (중중몰이) 여러 봉사 눈뜨고	20' 49"

한애순이 부른 심청가는 서편제 소리이다. 이 심청가는 현종 때의 박유전에서 비롯되어 철종 때의 이날치, 고종 때의 김채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의 박동실을 거쳐 한애순에게 전해진 것으로 다른 바디에 비해 부침새와 시김새가 정교하다.²⁵

한애순(1924~2014)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소리에 재질이 있었다. 12세 때부터 4년 동안 박동실에게 심청가와 수궁가를 배웠으며, 춘향가와 적벽가도 일부 배웠다. 17세부터 4년 동안 화랑창극단에서, 24세 때부터 3년 동안 임방울창극단에서 활동했으며 38세 때 서울에서 1년 동안 박록주에게 흥보가를 배웠다. 1973년부터 1981년까지 광주 시립국악원에서 판소리 사범을 하였으며, 1974년 5월 28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가 되었다.²⁶

③ <박봉술 흥보가>

<박봉술 흥보가>는 다음과 같이 음반 4장(총 2시간 39분 52초)에 담겨 있다.

²⁵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위의 책. 80-81.

²⁶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위의 책. 25. 83-84.

구 분	내용		시간
1	A	(아니리) 아동방이 군자지국이요 ~ (중중몰이) 흥보 마누라 나온다	20' 17"
	B	(아니리) 방으로 들어가서 ~ (진양) 비나니다, 비나니다	21' 14"
2	A	(아니리) 증거를 갖다가 ~ (잡은중중몰이) 겨울 동 자, 갈 거 자	17' 47"
	B	(아니리) 거그다가 성주를 한 뒤로는 ~ (잡은몰이) 흥보가 들어온다	18' 06"
3	A	(아니리) 흥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 (아니리) 허어어, 자네는 똑 버들	20' 47"
	B	(아니리) 자, 우리, 옷은 나중에 ~ (아니리) 놀보란 놈 공연한 짓	19' 51"
4	A	(아니리) 울목에 벌그런 게 ~ (휘몰이) 두릅박 이마빳	21' 24"
	B	(아니리) 놀보, 기가 맥혀 ~ (엇중몰이) 그 때여 박놀보는	20' 03"

박봉술이 부른 흥보가는 동편제 소리로 ‘송흥록→송광록→송우룡→송만갑→박봉래→박봉술’로 전승된 것이다. 이 흥보가는 서편제 흥보가가 부드럽고 맛이 있는데 비해 깨끗하고 정대하다. 흥보제비노정기는 김창환의 제비노정기를 수용한 것이고, 놀보제비노정기는 장판개의 흥보제비노정기를 수용한 것이다.²⁷

박봉술(1922~1989)은 전라북도 구례 출신으로 어릴 때 형 박봉래와 박봉채에게 배웠으며, 서울에 올라와서 송만갑에게 잠깐 배웠다. 박봉래는 송만갑의 수제자로 꼽히던 명창이었다. 박봉술은 ‘아이 명창’이라는 이름을 얻을 만큼 어릴 적부터 소리를 잘했으나 변성기에 소리를 너무 심하게 닦다가 목이 상해 버렸다. 그러나 불굴의 노력으로 판소리 다섯 마당을 모두 익혔으며, 그중에서 춘향가와 수궁가, 적벽가에 뛰어났다. 1973년 11월 1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의 보유자가 되었다.²⁸

④ 〈박봉술 수궁가〉

〈박봉술 수궁가〉는 다음과 같이 음반 3장(총 2시간 1분 15초)에 담겨 있다.

구 분	내용		시간
1	A	(아니리) 세재 지정 갑신년'에서 ~ (중중몰이) 화사자 불러라	21' 10"
	B	(아니리) 별주부, 토끼 화상 받아 ~ (엇몰이) 범 내려온다	17' 49"
2	A	(아니리) 호랑이란 놈이 내려와 ~ (잡은몰이) 일개 한 퇴	20' 35"
	B	(아니리) 가만히 토끼란 놈이 ~ (잡은몰이) 좌우 나줄 분부 들고	21' 43"
3	A	(아니리) 토끼를 그 영덕전 너른 ~ (중중몰이) 아서라, 다 바려	21' 12"
	B	(아니리) 이놈이 해변 가를 ~ (엇중몰이) 독수리 그제야 돌린 줄 알고	18' 20"

27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위의 책. 119-120.

28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위의 책. 120.

박봉술이 부른 수궁가는 동편제 소리이다. 이 수궁가는 ‘송흥록→ 송광록→ 송우룡→ 송만갑→ 박봉래→ 박봉술’로 전승된 것으로서 서편제 수궁가에 비해 당당하고 정대하다. 그리고 날짐승 상좌다툼이 없고 길짐승 상좌다툼만 있으며, 독수리가 토끼를 얻었다고 좋아하는 대목(중몰이)이 없다.²⁹

⑤ <정권진 적벽가>

<정권진 적벽가>는 다음과 같이 음반 4장(총 2시간 41분 38초)에 담겨 있다.

구 분	내용		시간
1	A	(아니리) 천하 합구즉분하고 ~ (жат은몰이) 조운이 말을 놓아	20' 18"
	B	(중몰이) 공명의 높은 재주 ~ (중몰이) 노래 불러 춤추는 놈	20' 41"
2	A	(아니리) 어떠한 늙은 군사 하나 ~ (아니리) 여러 군사 나왔으며	18' 38"
	B	(아니리) 또 한 군사 나오는데 ~ (진양) 공명이 거동 보아라	19' 17"
3	A	(아니리) 이때에 오나라 주유는 ~ (중몰이) 창황 분주 도망혈 제	20' 33"
	B	(아니리) 조조, 가끔 목을 움츠며 ~ (아니리) 애고 애고 통곡허니	20' 28"
4	A	(아니리) 일행을 재촉하야 ~ (жат은몰이) 목 움출이 들어온다	21' 54"
	B	(진양) 행군허여 떠나갈 제 ~ (엇중몰이) 제갈량은 칠종칠금허고	19' 11"

정권진이 부른 적벽가는 서편제로 ‘박유전→ 정재근→ 정응민→ 정권진’으로 전승된 것이다. 이 적벽가에는 삼고초려(진양조)가 초입에 먼저 나오고, 박망파 싸움(중머리+자진모리)이 있다. 이에 비해 박봉술의 적벽가에는 도원결의(중머리) 다음에 삼고초려가 나오고, 박망파 싸움 대신 장판교 싸움(중머리+자진모리+엇모리)이 길게 짜여 있다.³⁰

정권진(1927~1986)은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출신으로 정응민 명창의 아들이다. 부친에게 소리를 배워 일가를 이루었다. 군산국악원과 대구국악원, 대전국악원 등에서 판소리 강사로 활동했으며, 1961년 서울로 올라와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1970년 7월 22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가 되었다.³¹

29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위의 책. 157-158.

30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위의 책. 190-191.

31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위의 책. 193-194.

⑥ <단가>

<단가>(11편)는 다음과 같이 음반 1장(총 42분 28초)에 담겨 있다. 박봉술, 정권진, 한애순, 조상현이 소리하였고, 고수는 모두 김명환이었다.

구분	내용
A	1.<사창화류>(박봉술, 4' 13"), 2.<백발가>(박봉술, 3' 28"), 3.<홍문연>(박봉술, 5' 54"), 4.<진국명산>(정권진, 3' 11"), 5.<죽장망혜>(정권진, 3' 05"), 6.<효도가>(정권진, 3' 09")
B	1.<사철가>(한애순, 3' 36"), 2.<초한가>(한애순, 4' 30"), 3.<고고천변>(한애순, 5' 30"), 4.<백구가>(조상현, 1' 51"), 5.<이산저산>(조상현, 4' 11")

단가는 창자가 판소리 본바탕을 부르기에 앞서 목을 풀기 위해서 부르는 짧은 노래이다. 대개 산천 유람, 인생무상, 역대 고사 등을 중머리 장단으로 부르는데, 사창화류와 같은 엇중머리나 고고천변과 같이 중중모리로 부르는 것도 있다. 대부분 화평한 느낌의 경우조로 부르지만 계면조로 된 것도 있고, 경드름을 곁들여 부르기도 한다.³²

이상에서 살핀 바를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곡목	창자 고수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계
춘향가	조상현 김명환	46분 24초	46분 02초	46분 12초	42분 09초	44분 20초	45분 43초	271분 08초 4시간 31분 8초
심청가	한애순 김명환	40분 44초	39분 24초	39분 30초	41분 08초	43분 43초	.	204분 29초 3시간 24분 29초
홍보가	박봉술 김명환	41분 36초	36분 00초	40분 44초	41분 32초	.	.	159분 52초 2시간 39분 52초
수궁가	박봉술 김명환	39분 00초	42분 27초	39분 48초	.	.	.	121분 15초 2시간 1분 15초
적벽가	정권진 김명환	41'분 12초	38분 01초	41분 12초	41분 13초	.	.	161분 38초 2시간 41분 38초
단가 (11편)	박봉술 외 김명환	42분 28초	42분 28초

정병욱은 이 음반 전집에 대해 그 머리말(「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전집에 부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³²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위의 책. 229.

무대 위에서 불리는 판소리와는 달리, 이처럼 음반에 실린 판소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판소리의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여, 사설을 죄다 채록하고, 알기 어려운 구절과 한문 원전을 힘들여 되찾아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자세한 주석을 달아 준 일은 금상첨화적인 뜻 깊은 작업입니다. … 지난날의 감상회가 판소리를 다시 일으키려는 노력이었다면, 이번의 음반 출판 사업은 판소리를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보람찬 업적입니다.³³

그리고 이 음반 전집은 국제전통음악협회의 호평을 받아서 『전통음악연감』(1983)에 <영산회상>(문화공보부 출판)과 「한국의 전통음악」(뉴욕 한국문화원 제작)과 함께 그에 대한 평가가 실렸다. 세계적인 민족음악학의 권위자인 미국 메릴랜드대의 맨틀 후드(Mantle Hood) 교수는 『뿌리깊은나무 판소리』에 대해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이들의 판소리를 들으면 명창의 경지에 오른 음악성에 경외감을 느낀다. 이들 판소리 명창들에게 ‘위대한’이란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³⁴

이상에서 살펴본 『뿌리깊은나무 판소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소리꾼의 전성기 시절의 윤기 있는 소리와 명고수의 물 흐르는 듯한 북 가락이 잘 어울린 말 그대로 판소리의 진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기념비적인 명반이다. 특히 김명환의 북 가락은 ‘일고수 이명창’, ‘수고수 암명창’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최초로 기획 제작한 판소리 다섯 마당의 완창 음반이라는 음반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뿌리깊은나무 판소리』가 나오기 전에 완창 판소리 음반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1년 1월 한국문화재보호협회에서 『한국전통음악대전집』(스테레오 LP레코드, 50LP 박스물 전집)을 출판하였는데, 그 속에 김소희 춘향가 등 다섯 바탕의 완창 판소리 음반이 들어 있다. 이 음반은 지구레코드에서 1980년 10월 20일 제작하여 1981년 1월 초판 발매한 것으로, 판소리 음반의 음원은 대부분 문화재관리국에서 1976년 무렵에 기록 보존용으로 녹음한 것이다.³⁵

33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위의 책. 머리말.

34 『동아일보』, 1983. 9. 23. 국제전통음악협회는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는 세계적인 학술단체이며 이 협회가 펴내는 『전통음악연감』은 권위 있는 음악학술지로 널리 인정받고 있었다.

35 『한국전통음악대전집』 중에서 30-50집이 판소리이다. 46집 A면의 <수궁가>(7)는 ‘가자 어서 가 - 끝’이고, 50집 A면의 <적벽가>(8)는 삼고초려와 적벽대전이고, B면의 <적벽가>(9)는 새타령과 장승타령이다. 노래

셋째, 판소리 다섯 마당의 사설을 모두 기록하고 상세하게 주석함으로써 판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음질을 보장하기 위해 1,000질만 제작하는 등 이 음반 제작에 들인 한창기의 예술정신과 장인정신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은 음반 22장과 사설집 5권으로 출판/출판되었다. 한국 IBM의 지원을 받아 1990년 <홍보가>(1월)와 <춘향가>(5월)를 출판하였고, 1991년 <적벽가>(3월)와 <수궁가>(12월)를, 1992년 <심청가>(2월)를 출판하였다. 오정숙·최승희·송순섭·정광수·조상현이 소리하였고, 고수는 김동준·김명환·정철호·김성권·장종민이다.

이 음반 전집의 사설집에는 이 음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음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해설은 모두 백대용이 집필하였는데, 앞으로 음반과 관련된 것은 이를 따르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덧붙이기로 한다.

① <최승희 춘향가>

<최승희 춘향가>(고수 김명환)는 다음과 같이 음반 7장(총 5시간 37분 23초)에 담겨 있다. 성음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주식회사 오아시스에서 제작하였다.

명 편저. (2000). 판소리 음반 사전. 서울: 이즈뮤직.

곡목	창자	고수	비고
춘향가(1-14)	김소희	김명환	30-36집(7LP, 14면)
심청가(1-8)	정권진	신은휴	37-40집(4LP, 8면)
홍보가(1-4)	박록주	김동준	41-42집(2LP, 4면)
수궁가(1-7)	정광수	김명환	43-45집(3LP, 6면)
	박초월	김명환	46집 A(1LP, 1면)
적벽가(1-9)	박봉술	김명환	46집 B-49집(4LP, 7면)
	박동진	김명환	50집 A(1LP, 1면)
	한승호	김명환	50집 B(1LP, 1면)

구 분	내용		시간
1	A	(아니리) 숙종대왕 즉위 초에 ~ (단중머리) 방자의 원갓 생각	26' 12"
	B	(아니리) 편지 내어 향단이 주며 ~ (중머리) 춘향 방치레	25' 12"
2	A	(아니리) 까딱하면 퇴 맞을까 ~ (중중머리) 자진사랑가1	27' 13"
	B	(아니리) 늑이 위로 갔는데도 싫단 말이나? ~ (중중머리) 한양서 만나자는 춘향이	24' 25"
3	A	(아니리) 오오, 그럼 이별허잔 말씀이오 그러 ~ (중머리) 오리정 이별	25' 00"
	B	(아니리) 춘향의 울음 소리에 ~ (진양조) 꿈아, 무정현 꿈아	23' 00"
4	A	(중머리) 임 그리는 춘향이 ~ (중머리) 임을 찾아서 갈까 부다	27' 00"
	B	(아니리) 이렇듯 설리 올 제 ~ (중머리) 집장사령과 구경꾼의 말	24' 52"
5	A	(자진중중머리) 월매의 통곡 ~ (중머리) 옥중가와 몽중가	18' 40"
	B	(중머리) 옥중가와 몽중가 ~ (자진머리) 서리 역졸 분발	24' 13"
6	A	(중머리) 어사또의 행색 ~ (중중머리) 농부가2	27' 24"
	B	(아니리) 어사또 농부들이 모 심는 ~ (진양조) 어사또가 춘향을 찾아간다	24' 01"
7	A	(중머리) 어사또와 옥중 춘향의 상봉 ~ (자진머리) 어사 출도	24' 19"
	B	(아니리) 어사또 동헌에 좌정하신 후 ~ (중중머리) 신바람 난 월매	15' 52"

녹음-성음스튜디오, 제작-주식회사 오아시스
추입새-이순호 외, 채보-박승률 외, 사설 채록·주석-김남기 외

최승희가 부른 춘향가는 정정렬(1876~1938)이 새롭게 짠 것이다. 정정렬제 춘향가는 ‘정정렬 나고 춘향가 다시 났다’, ‘정정렬이 판을 막아버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정렬 스타일의 뛰어난 ‘신식 춘향가’이다. 최승희는 정정렬로부터 춘향가를 전수한 김여란(1907~1983)에게 배웠다. 이 춘향가는 다른 판에 비해 진취성과 개방성을 띠고 있다. 춘향과 이도령이 편지를 교환하고, 월매의 허락을 얻기 전에 신방을 먼저 차리며, 오리정에서 이별의 슬픔을 토로하고, 어사가 이도령인 줄 알고는 대상으로 올라가 해후의 감격을 드러낸다. 그리고 김세종판에 있는 금의 내력, 적성가, 회동 성참판 대목 등이 없으며, 김세종판에 없는 춘향의 몽사, 이도령의 심사, 오리정 이별 대목 등이 있다.³⁶

최승희(1937년생, 본명 최채선)는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창가’를 잘해서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다. 19세 때 아버지 몰래 군산성악회에 입학했다가 3달 만에 들켜 집으로 돌아왔고, 그 뒤 다시 전주국악원에서 소리 공부를 하다가 상경하여 김여란에게 정정렬제 춘향가를 배웠다. 1981년 제7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에서 장원을 하였다.³⁷ 1992년 6월 20일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가 되었다.

36 최승희 춘향가 사설집. 7-8.

37 최승희 춘향가 사설집. 11.

이 음반의 음원은 1980년 5월 김명환 반주로 녹음한 KBS녹음이다.³⁸ 뿌리깊은나무에서 최승희의 춘향가 음반을 내기 위해 1990년 2월과 3월 전판 녹음(고수 장종민)을 두 차례 하였다. 그러나 최승희의 건강 때문에 상성의 성음이 고르지 못해서 이면을 그리는 데 아쉬움을 남기는 등 음반으로 제작하기에는 미흡해서 부득이 이 음원을 사용하였다. 추임새는 1980년의 녹음을 감상하면서 이순호, 윤봉룡, 김상순이 한 것이다. 채보는 박승률, 오의혜, 김해숙, 백대웅이 하였고, 사설 채록과 주석은 김남기, 강혜선, 임선근, 박기웅, 신정란, 박미아, 강윤주가 하였다.³⁹

② <조상현 심청가>

<조상현 심청가>(고수 장종민)는 다음과 같이 음반 4장(총 3시간 42분 37초)에 담겨 있다. 성음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주식회사 오아시스에서 제작하였다.

구 분	내 용		시 간
1	A	(아니리) 송나라 원풍 말년에 ~ (중머리) 괘씨부인의 운명	26' 21"
	B	(아니리) 그때여 심봉사는 ~ (단중머리) 심봉사의 동남 행차	27' 30"
2	A	(아니리) 하루는 심청이 ~ (자진머리) 심봉사의 우려	27' 41"
	B	(아니리) 심봉사 그제야 말을 허되 ~ (진양조) 승상 부인에게 하직 인사	29' 05"
3	A	(아니리)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 (엇머리) 인당수 전경	27' 00"
	B	(자진머리) 선인들의 제사 ~ (중머리) 천자 앞에 나타난 심청	27' 00"
4	A	(아니리) 천자 보시고 ~ (아니리) 으관 행장을 모도다 가져가 부렸제	28' 00"
	B	(아니리) 심봉사 기가 맥혀 ~ (엇중머리) 뒤풀이	30' 00"
녹음-성음스튜디오(1991.8.23-24), 제작-주식회사 오아시스 추임새-김영소 외, 채보-박승률 외, 사설 채록·주석-박기웅 외			

조상현이 부른 심청가는 보성소리이다. 보성소리 심청가는 박유전의 심청가가 정응민의 백부인 정재근을 거쳐 정응민에게 전수된 것으로 조상현은 정응민에게 배웠다. 정응민은 고제 판소리의 맥을 곳곳하게 지켜온 명창으로 판소리가 창극, 국극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판소리의 수준 높은 음악성과 예술성이 왜곡되는 것을 거부하고, 마치 스러져가는 촛불을 지키듯이 정통 판소리의 법통을 지켰다.⁴⁰

38 이 음원은 2005년에 KBS미디어에서 「최승희의 춘향가」(5CD, 제작 (주)이엔이미디어)로 발매하였다.

39 최승희 춘향가 사설집. 13.

40 조상현 심청가 사설집. 7.

장종민(1955생)은 전라북도 남원 출신으로 국악예술중고등학교를 다녔다. 1982년부터 명고수 김명환에게 판소리 북과 가야금 산조 장단을 배웠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59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이다.⁴¹ 2013년 2월까지 20여 년 동안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음반의 녹음은 1991년 8월 23-24일에 하였고, 추임새는 녹음 현장에 참여한 김영소, 박평민, 박현명이 한 것이다. 그리고 채보는 박승률, 백대웅, 김해숙, 오의혜가 하였고, 사설 채록과 주석은 박기웅, 신경란, 홍우택이 하였다.⁴²

③ <오정숙 흥보가>

<오정숙 흥보가>(고수 김동준)는 다음과 같이 음반 4장(총 3시간 32분 20초)에 담겨 있다. 녹음처는 예루화 민속기획이고, 제작처는 주식회사 성음이다.

구 분	내 용		시 간
1	A	(아니리) 아동방이 군자지국이요 ~ (중중머리) 돈타령	27' 56"
	B	(아니리) 자 이 돈 가지고 양식을 팔어 오시오 ~ (중중머리) 흥보치의 통곡	28' 47"
2	A	(아니리) 이렇듯 흥보 내의 붙들고 우는 통에 ~ (자진중중머리) 제비노정기	27' 26"
	B	(아니리) 흥보 양주 앓은 앞에 툇 떨어뜨려 논 ~ (진양) 흥보의 놀보 생각	29' 00"
3	A	(아니리) 이렇듯 흥보가 형을 부르면서 ~ (중머리) 놀보의 흥보집 구경	27' 15"
	B	(아니리) 놀보가 상석으로 툇 앉더니 ~ (중중머리) 놀보 제비 거동 보소	28' 48"
4	A	(아니리) 놀보 받아 들고 여보소 마누라 ~ (아니리) 눈을 딱 부릅뜨고 벽력같은 큰 소리로	21' 48"
	B	(자진머리) 어서 바빠 집 뜯어라 ~ (엇중머리) 뒤풀이	21' 20"
녹음-민속기획(1989.12.5), 제작-주식회사 성음 추임새-이윤호 외, 채보-박승률 외, 사설 채록·주석-임선근 외			

오정숙이 부른 흥보가는 동초제로 김연수(1907~1974)가 새로 짠 것이다. 이 흥보가는 김연수가 유성준, 송만갑, 이동백, 정응민 등 20세기 초기에 활동했던 명창들로부터 배운 소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현존하는 흥보가 중에서 가장 길다.⁴³

오정숙(1935~2008)은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소리와 연극에 남다른 재주를 보였으며, 14세 때 김연수의 문하에 입문하여 판소리와 창극을 배웠다. 1972년 춘향가를

41 조상현 심청가 사설집. 11.

42 조상현 심청가 사설집. 12.

43 오정숙 흥보가 사설집. 24.

완창한 후 흥보가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의 완창발표회를 하였다. 1975년 제1회 전주대 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장원을 했으며, 1977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하여 오랫동안 활동했다. 198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후보가 되었고,⁴⁴ 1991년 5월 1일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가 되었다.

김동준(1929~1990)은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출신으로 국악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북 장단과 판소리를 익혔다. 13세 때 담양에서 박동실로부터 심청가, 적벽가 등 판소리를 배워 20세 무렵부터 여러 곳의 국악원에서 소리 선생을 하였다. 40세 무렵부터 목소리가 변하여 고수의 길로 들어섰으며 소리 내용을 잘 알아서 빈틈없는 치밀한 고법을 구사하기로 유명하였다. 1989년 12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9호 판소리 고법 보유자가 되었다.⁴⁵

이 음반의 녹음은 1989년 12월 5일에 하였고 추임새는 녹음 현장에 참여한 이윤호, 방기준, 김상순, 윤봉룡이 한 것이다. 채보는 박승률, 백대웅, 김해숙, 이병욱이 하였으며 사설 채록과 주석은 임선근, 김남기, 강혜선, 박기웅이 하였다.⁴⁶

④ <정광수 수궁가>

<정광수 수궁가>(고수 정철호)는 다음과 같이 음반 3장(총 2시간 43분 28초)에 담겨 있다. 녹음처는 성음스튜디오이고, 제작처는 주식회사 오아시스이다.

구 분	내 용		시 간
1	A	(아니리) 지정 갑신년중 하지절에 ~ (엇머리) 자라의 상소문	26' 16"
	B	(아니리) 용왕이 보시고 ~ (중중머리) 뱀돌의 나이 자랑	28' 26"
2	A	(아니리) 한참 이렇게 재미지게 ~ (중머리) 임자 없는 녹수청산	29' 04"
	B	(아니리) 아따 영락없이 옳소 ~ (진양조) 범피중류	29' 50"
3	A	(아니리) 좋다 좋다 별유천지비인간이로다 ~ (중중머리) 별주부의 읍소	23' 11"
	B	(아니리) 아 용왕이 발딱 넘어갔든가 보드라 ~ (엇중머리) 뒤풀이	26' 41"

녹음-성음스튜디오(1991.7.29, 31), 제작-주식회사 오아시스
추임새-박대두 외, 채보-천은영, 오의혜, 사설 채록·주석-박기웅, 홍우택

정광수가 부른 수궁가는 동편제인 유성준제이다. 이 수궁가는 ‘김세중→ 장재백→ 유성준’

44 오정숙 흥보가 사설집. 28.

45 오정숙 흥보가 사설집. 28.

46 오정숙 흥보가 사설집. 29.

으로 전승된 것으로 정광수는 유성준으로부터 배웠다. 유성준은 전라북도 남원(또는 구례) 출신으로 송우룡의 제자이다. 정춘풍과 김세종의 지침을 받아서 견문이 넓었고, 전도성과 쌍벽을 이룬 판소리 이론가였다. 장재백은 유성준의 처삼촌이다.⁴⁷

정광수(1909~2003, 본명 정용훈)는 전라남도 나주 출신으로 서편제 명창 정창업의 손자이다. 18세 때부터 5년 동안 김창환(1855~1937)에게 춘향가와 흥보가를 배웠으며, 정응민에게 심청가를, 유성준에게 수궁가와 적벽가를 배웠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성악연구회와 동일창극단 등에서 활동했으며, 1964년 12월 28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가 되었으며, 1973년에 다시 수궁가 보유자가 되었다.⁴⁸

정철호(1923~2021)는 전라남도 해남 출신으로 국악인 집안에서 태어나 7세 때부터 부친에게 춘향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14세 때부터 약 15년 동안 임방울에게 적벽가, 수궁가, 춘향가를 배웠다. 그리고 한성준의 제자로 임방울의 지정 고수였던 김재선에게 고법을 배워 고법으로 일가를 이루었다.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보유자 후보가 되었으며,⁴⁹ 1996년 9월 10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보유자가 되었다.

이 음반의 추임새는 1991년 7월 29일과 31일 녹음 현장에 참여한 박대두, 정유선, 홍원표, 송갑철이 한 것이다. 그리고 채보는 천은영과 오의혜가 하였으며, 사설 채록과 주석은 박기웅과 홍우택이 하였다.⁵⁰

⑤ <송순섭 적벽가>

<송순섭 적벽가>(고수 김성권)는 다음과 같이 음반 4장(총 2시간 56분 51초)에 담겨 있다. 녹음처는 소리방이고, 제작처는 주식회사 성음이다.

구 분	내 용		시 간
1	A	(아니리) 한나라 말엽 위한오 삼국 시절에 ~ (중중머리) 장판교 싸움1	24' 06"
	B	(아니리) 조운이 말게 내려 ~ (중중머리) 군사 설움타령3	24' 38"
2	A	(아니리) 이렇듯이 울음을 우니 ~ (중머리) 자룡의 공명 미중	23' 28"
	B	(아니리) 그때여 주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에 ~ (중머리) 적벽강의 조조	21' 01"

47 정광수 수궁가 사설집. 7.
 48 정광수 수궁가 사설집. 11.
 49 정광수 수궁가 사설집. 11.
 50 정광수 수궁가 사설집. 12.

3	A	(아니리) 조조 허허 웃고 대답히되 ~ (중머리) 적벽강 새타령	23' 00"
	B	(아니리) 한참 이리 설리 울다 ~ (중중머리) 장승타령	21' 01"
4	A	(아니리) 조조가 깜짝 놀래 잠에서 ~ (중머리) 정육의 하소연	16' 18"
	B	(아니리) 애들아 내가 이 신통한 피를 ~ (엇중머리) 뒤풀이	23' 19"
녹음-소리방, 제작-주식회사 성음 추임새-김오채 외, 채보-오의혜, 사설 채록·주석-김은정 외			

송순섭이 부른 적벽가는 소위 송판 적벽가이다. 이 적벽가는 ‘송홍록→ 송광록→ 송우룡→ 송만갑→ 박봉래→ 박봉술’로 전승되었는데, 송순섭은 박봉술로부터 적벽가를 배웠다. 송순섭의 적벽가는 정권진의 적벽가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송순섭의 적벽가는 도원결의부터 창이 시작되지만 정권진의 적벽가는 삼고초려부터 시작된다. 둘째, 송순섭의 적벽가에는 장판교 싸움이 길게 짜여 있으나 정권진의 적벽가에는 이 대목이 없는 반면에 송순섭의 적벽가에 없는 박망과 싸움이 간략하게 짜여 있고, 군사설움은 더 길게 짜여 있다.⁵¹

송순섭(1939년생)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으로 22세 때 늦은 나이에 소리꾼의 길에 들어섰다. 광주의 호남국악원에서 공대일 문하에서 본격적인 소리 공부를 하였는데, 이때 공대일에게 홍보가를, 김준섭에게 심청가를 배웠다. 1971년 부산에서 김연수에게 춘향가를 배웠으며, 28세 때에 부산에서 박봉술에게 송판 적벽가를 전수받았다. 24년간 부산에서 활동한 후 1987년 전남도립국악단의 창악부장을 맡았다.⁵² 2002년 2월 5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가 되었다.

김성권(1929~2008, 본명 김성래)은 전라남도 강진 출신으로 고수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13세 때부터 고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19세 때에 김채만의 고수였던 외삼촌 박선향에게 고법을 본격적으로 배웠으며, 20세 때에는 정응민에게 판소리도 배웠다. 30세 때부터 북치는 일에만 전념하여 전남도립국악단 단원으로 활동하였다.⁵³ 1991년 11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보유자가 되었다.

이 음반의 녹음은 1991년 7월 29일과 31일에 하였고, 추임새는 녹음 현장에 참여한 김오채, 박영수, 전경식, 전경환이 한 것이다. 채보는 오의혜가 하였으며, 사설 채록과 주석은 김은정, 임선근, 박기웅, 신경란이 하였다.⁵⁴

51 송순섭 적벽가 사설집. 7-8.

52 송순섭 적벽가 사설집. 11.

53 송순섭 적벽가 사설집. 11.

이상에서 살핀 바를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곡목	창자 고수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계
춘향가	최승희 김명환	51분 24초	51분 38초	48분 00초	51분 52초	42분 53초	51분 25초	40분 11초	337분 23초 5시간 37분 23초
심청가	조상현 장종민	53분 51초	56분 45초	54분 00초	58분 00초	.	.	.	222분 37초 3시간 42분 37초
홍보가	오정숙 김동준	56분 43초	56분 26초	56분 03초	43분 08초	.	.	.	212분 20초 3시간 32분 20초
수궁가	정광수 정철호	54분 42초	58분 54초	49분 52초	163분 28초 2시간 43분 28초
적벽가	송순섭 김성권	48분 44초	44분 29초	44분 01초	39분 37초	.	.	.	176분 51초 2시간 56분 51초

이상에 살펴본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뿌리깊은나무 판소리』와 마찬가지로 명창의 소리와 명고수의 북 장단이 조화를 이룬 소리를 담고 있는 명반이다. 최승희의 춘향가, 조상현의 심청가, 오정숙의 홍보가, 송순섭의 적벽가에서는 한창때인 40-50대의 싱그러운 소리와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정광수의 수궁가에서는 80대의 노명창이 도달한 경지를 엿볼 수 있으니 팔순의 노광대 고수관에게 보낸 자하(紫霞) 신위(申緯, 1769-1845)의 상찬⁵⁵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귀명창들의 추임새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음반 전집 이전에 나온 판소리 완창 음반은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여 창자의 소리와 고수의 북 장단과 추임새만 담았다. 『뿌리깊은나무 판소리』도 마찬가지이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에서 고수의 추임새와는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소리판은 청중의 추임새를 먹고 생동한다고 해도 과언

54 송순섭 적벽가 사설집. 12.

55 자하는 고수관의 팬이었는데, 1826년 그의 소리를 듣고 <관극절구 십이수>를 지은 바 있고, 1840년 3월에는 고수관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三月三日 老伶高壽寬來自洪鄉 故置酒劇 回憶乙酉春 同李杞園摠使 拉高伶作 一月之歡 余有觀劇詩十絕句 感舊題贈>을 지어 주었으며, 1843년에는 고수관의 소리를 듣고 이별하는 마당에서 다음과 같은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는 시를 지어 주었다. “八句相對鬢毛蒼 泡滅光陰演劇場 山色碧簾吟舫子 濤聲海月古禪房 鶯花夢幻張三影 煙景魂消脫十娘 縱使後期能有日 不堪重理舊春香(팔순에 마주 대하니 귀밑머리 세었고, 세월은 거품처럼 소리판에 사라졌네. 산 빛은 푸른 갈대 빛인데 뱃사공은 읊조리고, 파도소리는 달빛 속의 묵은 선방에 들리네. 피꼬리 울고 꽃 피어 장삼영의 시가 어른대고, 아름다운 경치는 미녀들의 뉘를 빼앗네. 설령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 해도, 예전의 춘향가는 다시 부르지 못하리.)”, <高壽寬 八十之年 演劇猶能昔時聲調 臨別有詩>. 신위. (1983). 신위전집, 4. 서울: 태학사 영인. 2003.

이 아니다. 이 음반 전집을 제작하면서 청중의 추임새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반영하려고 한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스튜디오에서 하는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추임새와 같을 수 없다. 아무래도 녹음을 의식하여 의도적인 추임새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다소 과장되거나 어색한 부분도 있게 된다. 특히 최승희 춘향가는 녹음을 듣고 한 추임새여서 옥에 티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오선보로 채보를 하였다는 점이다. 창자의 특유한 음악어법에 따라 원칙을 정해 채보하여 창자의 소리를 제대로 드러내려고 하였다. 전 바탕을 채보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김기수가 채보했던 악보⁵⁶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채보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4.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재발매 CD음반의 현황

『뿌리깊은나무 판소리』(23LP, 1982년)는 「뿌리깊은나무 판소리」(23CD, 2000년)로 재발매되었다. 그리고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은 다섯 바탕의 눈 대목만 뽑아 1장의 CD음반인 「뿌리깊은나무 조선소리 선집 13, 판소리의 눈」(1CD, 75:46, 1998년)으로 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흥보가의 눈(19:27), 소리 오정숙, 북 김동준

① 아니리(00:20), ② (단중머리) 흥보 제비 구출(02:41), ③ 아니리(00:35), ④ (진양조) 흥보와 제비(05:05), ⑤ 아니리(00:24), ⑥ (중중머리) 제비 황제께 여짜오되(01:41), ⑦ 아니리(00:45), ⑧ (자진중중머리) 제비노정기(07:54)

2. 춘향가의 눈(23:49), 소리 최승희, 북 김명환

① (진양조) 옥증가와 몽증가(23:49)

3. 적벽가의 눈(10:25), 소리 송순섭, 북 김명환

56 박초월 수궁가(1970년), 임방울 적벽가(1972년), 박동진 흥보가(1975년), 정권진 심청가(1976년), 김소희 춘향가(1977년) 등 전승오가 전 바탕을 채보하여 『한국음악』(6, 10, 13, 14, 15, 국립국악원)에 수록하였고, 김기수, 『한국음악』 5[적벽가, 춘향가]와 『한국음악』 6[수궁가, 흥부가, 심청가](전통음악연구회, 1981)에 수록되어 있다.

① 아니리(00:47), ② (자진머리) 자룽이 활 쏘는 대목(09:38)

4. 수궁가의 눈(08:21), 소리 정광수, 북 정철호

① (중중머리) 별주부의 읍소(02:32), ② 아니리(00:39), ③ (진양조) 토끼의 수궁 탈출(03:15), ④ 아니리(00:46), ⑤ (단중머리) 토끼의 욕설(01:09)

5. 심청가의 눈(13:29), 소리 조상현, 북 장종민

① (진양조) 범피중류(07:31), ② (중머리) 한 곳을 당도하니(05:55)

이 재발매 CD음반들은 초판 LP음반을 접하기 어려웠던, 판소리 애호가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판소리를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다만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은 눈 대목만 뽑아 1장의 CD음반으로 제작함으로써 초판 LP음반에 담겨 있는 소리를 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평생을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을 사랑하고 가꾸면서 살다가 전통문화가 되어 떠난 한창기가 기획·출판한 『뿌리깊은나무 판소리』와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의 의의와 그것을 복각하여 재발매한 CD음반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브리태니커회사와 판소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브리태니커/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가 1974년 1월부터 1978년 9월까지 100회 열렸다. 박동진을 비롯한 여러 명창과 김득수 등의 명고수가 등장하여 판소리 다섯 바탕을 연창했는데, 이 판소리 감상회가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음반 전집을 출판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둘째, 『뿌리깊은나무 판소리』는 1982년 5월 음반 23장과 사설집 6권으로 출판되었다. 김세중제 <조상현 춘향가>(6LP, 4시간 31분 8초), 서편제 <한애순 심청가>(5LP, 3시간 24분 29초), 동편제 <박봉술 흥보가>(4LP, 2시간 39분 52초), 동편제 <박봉술 수궁가>(3LP, 2시간 1분 15초), 서편제 <정권진 적벽가>(4LP, 2시간 41분 38초), <단가>(1LP, 42분 28초)를 담고 있으며, 고수는 모두 김명환이다. 이 판소리 음반 전집은 명창의 소리와

명고수의 북 장단이 조화를 이룬 기념비적 명반이고, 최초로 기획 제작한 판소리 다섯 마당의 완창 음반으로 판소리 음반사적 의의가 크다. 그리고 판소리 다섯 마당의 사설을 모두 채록하고 상세히 주석하여 판소리 이해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한창기의 예술정신과 장인정신의 진면목도 잘 보여주고 있다.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은 1990년 1월부터 1992년 2월 사이 음반 22장과 사설집 5권으로 출판되었다. 정정렬제 <최승희 춘향가>(고수 김명환, 7LP, 5시간 37분 23초), 보성소리 <조상현 심청가>(고수 장종민, 5LP, 3시간 42분 37초), 동초제 <오정숙 흥보가>(고수 김동준, 4LP, 3시간 32분 20초), 유성준제 <정광수 수궁가>(고수 정철호, 3LP, 2시간 43분 28초), 송판 <송순섭 적벽가>(고수 김성권, 4LP, 2시간 56분 51초)를 담고 있다. 창자의 소리와 고수의 북 장단이 조화를 이룬 명반으로, 귀명창들의 추임새를 반영하고, 다섯 마당의 사설을 채록하고 상세히 주석하고, 오선보로 채보하여 판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셋째, 『뿌리깊은나무 판소리』는 2000년에 23장의 CD음반·사설집으로 재발매되어 초판 LP음반을 접하기 어려웠던 판소리 애호가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판소리를 이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다만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은 명반임에도 불구하고 출판된 지 오래되었고, 또한 CD음반으로 제작되지 않아 접하기가 어렵다. 이 음반들도 빠른 시일 내에 CD음반으로 제작되어 널리 보급되어 판소리 애호가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The Deep-rooted trees. (1982). Deep-rooted tree pansori. Seoul: deep-rooted trees.
- The Deep-rooted trees. (1990-1992). Five backgrounds of deep-rooted tree pansori. Seoul: deep-rooted trees.
- Kim Seok-bae. (2016). About the Sound of The Deep-rooted Tree. Seonju Nonchongchong, 19.
- Kim Seok-bae. (2022). The significance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The Deep-rooted tree pansori albums. Seoul: Parkmunsa.
- Kim Hye-jeong & Lee Myung-jin. (2011). Pansori. Seoul: Minsokw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Oriental Music Research Institute. (2018). The Deep-rooted Tree Pansori Appreciation, Archive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Yoo Young-dae. (2013). Pansori Transmission Status and Preservation Plan. Pansori Research, 36.
- Jeong Byung-wook. (1981). Pansori in Korea, Seoul: Jipmundang.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음반 전집의 의의

김석배

금오공과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뿌리깊은나무에서 출판한 판소리 음반 전집인 『뿌리깊은나무 판소리』와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의 의의와 이것을 재발매한 CD 음반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뿌리깊은나무에서 출판한 판소리 음반 전집인 『뿌리깊은나무 판소리』와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 재발매한 CD 음반이 지닌 의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음반의 발매 양상, 음반에 수록된 곡이 지닌 특성 등을 확인하였다.

결론 첫째,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가 1974년 1월부터 1978년 9월까지 100회 열려 박동진, 박봉술, 정권진 명창 등이 판소리를 연창했는데, 이 감상회가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음반 전집을 출판할 수 있게 한 ‘뿌리’요 ‘샘’이었다. 둘째,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은 1990년 1월~1992년 2월에 음반 22장과 사설집 5권으로 출판되었다. 정정렬제 <최승희 춘향가>(7LP, 고수 김명환), 보성소리 <조상현 심청가>(5LP, 고수 장종민), 동초제 <오정숙 흥보가>(4LP, 고수 김동준), 유성준제 <정광수 수궁가>(3LP, 고수 정철호), 송판 <송순섭 적벽가>(4LP, 고수 김성권)를 담고 있다. 이 판소리 음반 전집 역시 창자의 소리와 고수의 북 장단이 조화를 이룬 명반이다. 귀명창들의 추임새를 반영하고, 다섯 바탕의 사설을 채록하여 상세히 주석하고, 오선보로 채보하여 판소리를 이해하는 데 일정하게 이바지하였다.

셋째, 『뿌리깊은나무 판소리』는 2000년에 「뿌리깊은나무 판소리」(23CD)로 재발매되어 초판 LP음반을 접하기 어려운 애호가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판소리 이해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한편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은 눈 대목만 뽑아 1CD로 제작하여 아쉬움이 있다.

핵심어 한창기, 브리태니커·뿌리깊은나무 판소리감상회,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 바탕』, 현황과 의의, 재발매 음반

이 논문은 2024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 되어,
2024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